

다산포럼

‘남산의 부장들’이 남긴 씁쓸함에 대하여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설날 연휴에 이병헌·이성민·곽도원·이희준 등이 출연한 우민호 감독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았다. 벌써 300만 명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는 10·26 사건을 포함한 박정희 대통령 최후의 40일을 다루고 있다. 한때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의 권력투쟁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미스터리 김형욱 실종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 영화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뿐 아니라 2005년 개봉했던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사에 가까운 대본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정제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본 뒤 씁쓸해지는 듯하다. 이 씁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첫째, 이 영화는 10·26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 문제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식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차지철은 계엄령과 공수부대 동원을 통

한 강경 진압을 주장하였고 박정희는 이런 의견에 동조하였는데, 김재규는 이런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의 결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견역의 차이에 대한 심리적 분노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호실장의 월권과 자신에 대한 모욕에 대해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 영화에서는 거사 직전에 김재규가 그의 부하들에게 그의 결심을 전달하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김재규의 인격을 믿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보면 당시 경호실의 월권이나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10·26 이전에 김재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히거나 부하들과 공유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산이나 마산 시민들도 이 영화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다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둘째, 이 영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정치 철학보다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더 잘 보여 주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그는 항상 답을 말하지 않고 “인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라고 말한다. 그를 따르던 최고위급 부하들은 그런 무한 신뢰의 언사 속에 토사구팽이라는

독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영화는 또한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중앙정보부조차 잘 모르는 다른 인물이나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영화가 보여 주듯이 유신체제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박정희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형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이 영화에서 김형욱은 파리 근교의 양계장에서 10·26이 일어나기 약 2~3주 전에 살해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죽음에 관한 다른 주장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재규는 전임 정보부장 김형욱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이런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김형욱이 정보부장으로 일하던 시기는 세계적 냉전과 함께 남북 간 체제 경쟁이 극심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1966년 7월, 북한이 런던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진상 조사를 벌이면서, 축구협회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축구단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읍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따라 이름을 ‘양지’라고 정했다. 이제는 한국 축구의 전설이 된 선수들이 핵심 멤버였다.

1967년 봄부터 1970년까지 활동한 이 축구팀은 1968년에 만들어진 심미도 부대와 함께 김형욱의 주요 작품이었다. 그만큼 그는 저돌적이었지만, 토사구팽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셋째, 이 영화에서는 10·26 사건과 김재규 거사의 중요한 배경으로 갈등이 심했던 한미 관계를 다룬다. 이 영화에서는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 대교의 양계장에서 10·26이 일어나기 약 2~3주 전에 살해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죽음에 관한 다른 주장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재규는 전임 정보부장 김형욱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이런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김재규는 1980년 광주 5·18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의 민주항쟁을 알고 갔을까? 이 영화는 한국현대사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굴곡진 한국현대사와 1960~70년대 경제 성장 및 권위주의 독재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이 영화가 주는 씁쓸함의 원천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고

21대 국회의원, 이런 후보라면 찍어 주겠다



양성관  
동강대 교수

여느 해 같으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 대화의 상당 부분이 정치에 관한 담론이 화두가 될 터인데, 이번 명절에는 정치에 관한 얘기는 가족 간에 별 이슈가 되지 못한 듯하다.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우리의 눈과 귀를 온통 마스크에 빠져들게 한 것이 한 몫을 했고, 그보다는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무관심이 더 큰 이유인 것 같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먼저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국민들에게 잘 안 되었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 알리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명절은 선거와 겹쳐서인지 국회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후보, 그 외에 이름도 모르는 철세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 곳곳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반감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 명절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판이 되었을까?’ ‘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 이런저런 안타까운 생각이, 내가 원하는 정치인, 내가 꿈꾸는 정치인, 나아가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나의 꿈 같은 바람을 적어 본다.

내가 희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첫째 바람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사람은 난 사람, 된 사람, 돈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난 사람, 돈 사람이 되기 전에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인 된다면, 이는 어ந்த어 손에 칼자루를 쥐어 주거나, 술에 만취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사람이 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살펴서 찍을 일이다.

두 번째 바람은 인품이 갖추어진 후보자 가운데 “만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딱 한번만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

는 후보가 있다면 찍어 주겠다. 사람은 땅을 파고 일터에서 땀을 흘릴 때에 비로소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정치라는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이후에는 본인의 본래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후보라면 찍어 주고 싶다. 이러한 사람이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만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활동하겠습니다”라는 국회의원이었다면 찍어줄 것이다. 이는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자신의 생각보다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정당의 정쟁만을 따르며 소신이 없어지는 국회의원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에 입각하여, 그 지역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책무이다. 정당의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면 이런 후보를 찍

어주겠다.

마지막으로는 “만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월급의 절반을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를 찍어 주겠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000만 원으로 세계 3위 정도로 높고, 이외에도 아홉 명의 보좌관을 두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혜가 많다. 그렇기에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무소속주의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획득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가 보다. 그러한 의미에서 월급의 절반을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애민 정신과 겸손함을 갖춘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찍어 줄 것이다.

이상으로 필자가 희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네 가지 바람을 적어보았다. 이렇게 하겠다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공약으로 제안하고 실천하는 국회의원이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일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온전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기고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이제 시작이다



김경호  
광주시 노동협력관

수렴을 영어로 풀어보면 컨버전스(convergence)이다. ‘con’은 어원으로 ‘together’ (함께)라는 의미이고, ‘verg’는 ‘turn or change’ (돌고 바뀌는)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돌고 바뀌어 하나로 집중이 되어간다’의 의미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구도 가 보지 않아 알 수 없는 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의 계량화된 일자리가 아니라 계량화할 수 없는 노사 상생의 가치를 담은 일자리이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던 수렴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

지만, 수렴해 가는 과정은 끝이 없다. 기존의 다양한 변수(비효율)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고, 그 목표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 시는 노사 상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노동의 가치를 공문화하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까지 몇 개의 기존 일자리를 더 완성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각 주체간 끊임없이 논의하고 숙의하여 모두 함께 그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의 결과물은 숫자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4일 전국에서 최초로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선언 이후 각 사회 주체들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후속 실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계가 투쟁과 민원의 당사자에서 협력과 협업의 파트너로서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노사 상생 도시의 선언은 노동 참여의 기회와 목소리를 담고 있다. 현장의 쓴소리도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년 말 노동계와 함께 노사 상생 도시를 고민하

는 토론의 장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석호 민주노총 전 사회연대위원장 은 광주의 노사 상생 도시는 서울과 경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노사 상생을 단지 노동으로만 한정하고 접근하는데 비해 광주는 노와 사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광주의 노사 상생 도시 구상은 비전을 먼저 세우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확정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쓴소리도 이어갔다.

광주형 일자리 첫 삽은 노동 참여의 실증일 것이다.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노동계와의 대화, 굴곡점이 있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는 양국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의 벽을 끌어올리는 것일 것이다. 즉 지역에 보편화된 삶의 평등을 광주에서부터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다. 작년 1월 31일 대통령께서도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

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던 바 있다. 그 결과 광주에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기업하고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 상생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미 우리 광주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숙의와 곡절로 그 방향과 적용 모델을 만들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 방향에 우리의 신호등을 켜고, 어떻게, 무엇으로 설치할지, 건널목은 어떻게, 몇 차선을 만드는 게 좋을지는 지금 머리를 맞대 논의할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의 기업 중심의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여 새로운 노사 상생이라는 명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수렴해 가는 일자리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각계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사랑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社說

설 ‘밥상 민심’ 잘 새기면서 총선 준비하라

설 연휴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4·15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 명절에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밥상머리에 오른다. 올해는 특히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 친지들이 다가오는 총선을 화제로 둘러머 담소를 나누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제각기 정치평론가가 되어 어떤 이는 야당 심판론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정권 심판론에 열을 올렸을 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사태도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치권을 둘러 달라는 게 지역민의 요구였다”고 전했다.

지역민을 두루 만나 본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지역구를 돌아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검찰 개혁 성공 등으로 인한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

는 여론이 높았다고 말한다. 야권은 또한 “제3차대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에 기대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했으나,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미워져 민주당을 이 야기하지만, 제3세력이 합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분열한 초남 정치권에 실망해 통합을 서둘러 달라는 게 지역민의 요구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설 밥상머리 민심은 ‘각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지’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야권인수식 민심 해석으로는 일을 그르칠 뿐이다. 이들이 앞으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민생 경제다. 여야 지도부와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를 명심하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확산 우려 ‘우한 폐렴’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국내에서 ‘우한(武漢)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귀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어제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25일 고열과 근육통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환자를 포함한 국내 확진자 네 명 중 두 명은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어 지역 사회로 복귀했다가 이후 발열 등이 나타났다. 네 번째 환자의 경우 지난 20일 입국 후 21일 감기, 25일 고열로 두 차례 병원을 찾았는데 불구하고 검역망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환자들이 증상이 발현된 이후 지역 사회에 머물면서 접촉자들에게 대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화권 우한 폐렴 확진자는 2744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80명으로 어르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원지인 우한이 봉쇄되기 전 50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떠난 이들도 643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하지만 우한 폐렴에 대비할 백신이나 특정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예방과 검역이 최선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 과정의 방역 시스템을 총총히 구축하고 지자체와 병원, 보건소 등의 공중 보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연희라디오에서 ‘1월을 뜻하는 순우리말을 묻는’ 퀴즈를 듣게 됐다. 그런 말이 있었나 곱씹게 생각하던 터에 ‘해오름달’이라는 정답에 귀가 번쩍 뜨였다. 금금해서 사전을 뒤졌으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의 근거를 찾아보았다. 전방위 예술가로 활동하는 임의진 목사가 일찍이 녹색연합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제안한 우리말 달 이름이란 것을 알게 됐다. 1월은 새해에 힘

도 찾아보았다. ‘아정선달에미진정월’이라는 재미난 속담이 있었다. 음력을 기준으로 북은 해 뜨듯미리인 선달은 한가하게 어정어정 보내고, 새해를 맞은 정월은 언제 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다.

‘액막이 타령’은 재앙이나 불행을 뜻하는 ‘액(厄)’을 막기 위해 정월 초에 부르던 토속민요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1년 내 내 무탈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액을 막자 액을 막자/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로 막아 내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샴질에막아내고...’(순 있게 오른다 해서 ‘해오름달’, 2월은 꽃샘추위

‘해오름달’

가 있는 겨울의 끝이라 해서 ‘시샘달’, 3월은 산과 들에 물이 오른다 해서 ‘물오름달’과 같이 우리말로 이름을 붙였다. 문화연대에서도 우리말 달 이름을 만들었다. 1월은 새해맞이에 함박 웃는 ‘한뽕달’, 2월은 햇살에 새움이 돋는 ‘들뽕달’, 3월은 봄나뭇잎에 입맞 붙는 ‘온뽕달’이다. ‘해오름달’이나 ‘한뽕달’은 대중들에게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의미를 부여한 예쁜 우리말 달 이름이어서 눈길을 끈다. 내친 김에 달과 관련된 속담과 토속민요

/송기룡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